

종합·해설

법원, 한나라 당헌 개정 효력정지...전국위 재소집 비상

정족수 못채우면 쏠대 연기 우려

친이 '여론조사 30% 반영' 개정 언급 당권주자들 "전대 연기 있을수 없다"

최근 개정된 당헌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나라당이 7·4 전 당대회 경선규정 재개정을 위한 전국 위원회를 소집해 놓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더욱이 현행 전대 규정을 놓고 이의가 제기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한나라당 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8일 저녁 국회에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개최, 당헌 개정안

을 내달 2일 전국위를 열어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이번 전국위에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대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국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9일 현재 당 지도부뿐 아니라 당권주자들 모두 전대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족수를 못 채울 경우를 대비해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당 일부에서 여전

히 경선 규정에 대해 불만이 많다. 특히 '선거인단 21만명의 투표결과 70%+여론조사 30% 반영' 부분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나경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친이(친이법박)계를 중심으로 '여론조사 30% 반영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친이계 차명진 의원은 지난 28일 밤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국위원회가 '여론조사 삭제' 부분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친이계 의원도 29일 "법원 판결의 취지는 지난번 전국위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만큼 '여론조사 폐지', '1인1표제'라는 비대위 결정을 무력화한 전국위 결정을 재논의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며 "특히 다

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 30% 반영' 부분은 표의 등가성 문제로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권 주자 7명이 대부분 현행 규정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쪽인데다 쇠신파나 친박(친박근혜)계는 내용을 수정하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쇠신파 의원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물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친박계 구상한 의원은 "어제 판결은 전국위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고칠 필요는 없다"면서 "진행 중인 전대물을 고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이 KBS신수로 인상안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을 점거 중인 가운데 29일 오전 문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틀째 수신료 인상 저지

문방위 점거 농성...여 단독처리 가능성 봉쇄

민주당은 29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방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의원별 당면시간을 정해 전제회 위원장석과 의회장을 차례로 지키며 30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의회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방위 이찬열 전 해수최종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최됐음에도 문방위 의회장을 지키며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봉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등 선결요건을 제시한

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덮어둔 채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회 문방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KBS 수신료 인상과 전제회 위원장석과 의회장을 차례로 지키며 30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의회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방위 이찬열 전 해수최종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최됐음에도 문방위 의회장을 지키며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봉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등 선결요건을 제시한

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덮어둔 채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회 문방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KBS 수신료 인상과 전제회 위원장석과 의회장을 차례로 지키며 30일 국회 본회의가 산회할 때까지 의회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방위 이찬열 전 해수최종원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최됐음에도 문방위 의회장을 지키며 한나라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봉쇄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확보, 지배구조 개선 등 선결요건을 제시한

'마을기업' 성공위한 정책 세미나

광전포럼 오늘 전남대서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사장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이하 '광전포럼')은 30일 오후 6시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컨벤션홀 3층에서 제3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전포럼이 주최·주관하고 전남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를 주제로 마을기업의 국내 정착 현황과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재생과 농촌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민현정 박사(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와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임 이사장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비즈니스 커뮤니티 '마을기업'은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랜 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성공적이고 빠른 정착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

김효석 민주당 의원(담양·곡성·구례)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추진농장 인증제 도입 등으로 농장 동물의 사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동물복지 촉진 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동물복지 종합 계획이 수립되는 등 동물복지 정책도 한 단계 높아지게 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경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

여야 "경제단체장 불참 오만불손한 작태" 단가 후려치기·문어발 확장 고강도 질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9일 개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납품 단가 후려치기,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진출인으로 선정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불참한 데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무 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불참해 농성을 받았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단체장을 대신 이승철 전경련 전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이동은 한 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공청회는 대기업 성토장이었다.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세 번의 경제단체 대표들이 국회에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붙였다"며 "국회가 나라도, 기업도 안중에 없이 표판 생

각하는 무책임한 정치집단으로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지내발 식으로 업종을 침해하는데 어느 중소기업이 버티겠느냐"며 "상도의를 잃은 것은 물론 기업가 정신도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타이슨 같은 권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랑 한 판 붙자고 한다면 과연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어린이가 손목 비틀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동은 전무는 "동반성장에 대한 지나친 강도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도 "동반성

장은 누군가 일방적·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모양새가 훨씬 더 좋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장의 공청회 불참식에 대한 고강도의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오만불손한 작태"라며 "대신 나온 실무진을 모두 내보내고 따로 청문회를 개최해 단체장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민주당 조정태 의원은 최종경 장관이 코스닥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제1차관이 장관을 대행하고 장관은 청와대나 왔다갔다 하도록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축은행 국조 특위

46일간의 활동 시작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 규명 및 대책 마련 등을 조사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같은 국정계획서가 통과됐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이날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 가동되며, 예비조사와 문서검증 및 현장 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투기가 예상되는 데다 전·현 정부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전개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특위 위원으로는 광주 서구 을의 민주당 조영태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고승덕·신지호·이종혁 의원, 민주당 우재창·박신숙·신 건·이춘석·조정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내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분할가능)
-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8.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지: 10980㎡, 임야: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임몰,계곡있음
- 매매가: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읍산면 월산리 • 대지: 1038㎡, 건물1096㎡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충동 한국아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대 지: 1425㎡ 투지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 전,답: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고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8480㎡ 공장부지: 3192㎡의 잡종지 담양목과방면2차선 도로로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010-6522-7731 FAX: 512-4589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여성가족부인정)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7월 4일(월) ~ 8월 5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 **접수기간**: 2011. 6. 24(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는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22만원
※ 계좌: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징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장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